

일본 돗토리현 세 도시로 떠나는 삼색(三色) 여행

일본 열도의 허리, 주고쿠(中國) 지방의 돗토리(鳥取)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10분이면 닿는 곳이다. 북쪽으로 동해를, 남쪽으로 주고쿠 산맥을 접하고 있는 돗토리현은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지만, 사계절 독특한 색채의 풍경을 지닌 여행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시각각 모습이 변하는 돗토리 사구와 팻바이크(Fat Bike) 체험, 고색창연한 건물이 즐비한 시라카베도조군, 만화 '계계계의 기타로'를 모티브로 한 미즈키 시게루 로드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채롭다. 게다가 소바(메밀국수),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등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 '가성비' 높은 해외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시차도 없고 비행시간도 짧은 돗토리현이 안성맞춤이다.

글·사진 이창호 기자





5 모래미술관
전망대에서 바라본
돗토리 사구.
6 거대한 조각상인
'궁중도시 마추픽추'
(가운데)와 모래
조각품.

돗토리

돗토리 사구, 바람과 모래가 빚어낸 예술작품

돗토리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모래 언덕 '돗토리 사구(砂丘)'다. 이곳은 산인해안국립공원의 특별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연간 관광객 250만 명이 찾는 이색적인 명소다. 일본인들도 돗토리 사구를 보지 않고 돗토리현을 제대로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돗토리현의 상징'으로 불리는 돗토리 사구는 길이(동서) 16km에 폭(남북) 2.4km로 바람과 모래, 그리고 시간이 빚은 모래 언덕이다. 이곳은 약 3만 년간 풍화된 화강암이 모래로 바뀌어 바다로 흘러든 다음, 겨울철 거친 파도에 실려 오고 바닷바람에 날려 한줌씩 쌓여 만들어진 '자연의 걸작'이다.

이곳은 해안 쪽에서부터 제1, 제2, 제3 사구열(砂丘列)로 이루어져 있는데, 짙푸른 바다와 사막이 맞닿은 듯한 풍경을 볼 수 있다. 해안 사구 동쪽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언덕에 오르면 해변까지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모래밭이 눈에 들어온다. 관광객들은 이국적인 풍광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낙타를 타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해안사구 중 가장 높은 지점인 '우마노세'(말의 등)로 향한다. 바닷바람이 쓸고 간 모래 언덕에는 아름다운 물웅덩이가 선명하고, 모래밭 한가운데 서 있으면 마치 중동의 사막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또 모래밭 중간 중간에 물웅덩이가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인다. 두꺼운 모래 속으로 폭폭 꺼지며 발걸음을 400m 정도 옮기면 제2 사구열에 위치한 높이 47m의 우마노세가 앞을 막아선다. 관광객은 개미들의 행렬처럼 줄을 지어 30도의 급경사 모래 언덕을 오른다.

1, 2, 4 일본 최대의 모래언덕 돗토리 사구는 바다와 접하고 있는 해안 사구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3 돗토리 사구에선 팻바이크, 패러글라이딩, 샌드보드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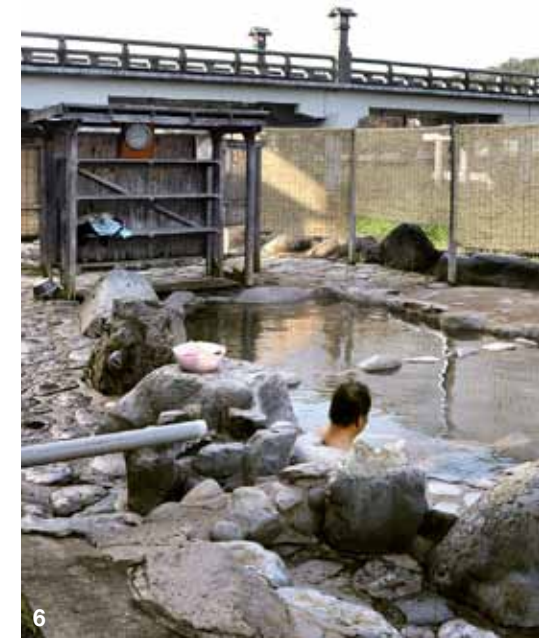
정상에 오르면 가파른 모래 절벽 너머로 바다와 마주하게 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지만 바다와 사구가 빚어내는 풍경이 경이롭고 장엄하다.

바람이 모래 위에 그리는 문양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사구는 '자연의 캔버스'라고도 불리는데, 돗토리 사구의 풍광은 감탄을 넘어 감동으로 다가온다. 바람에 의해 모래 표면에 생기는 물결 모양의 무늬인 풍문(風紋)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초속 5m 이상의 강풍이 분 다음날 아침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구에선 모래에 바위가 빠지지 않는 광폭타이어가 장착된 팻바이크와 패러글라이더, 샌드보드 등으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해안 사구 옆엔 모래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여행을 테마로 매년 전시가 바뀌는데 1월 3일까지 남미를 주제로 10개국 18명의 샌드아티스트들이 제작한 '이과수 폭포와 인디오', '황금향 엘도라도', '잉카제국', '쿠스코거리 풍경', '리우 카니발' 등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오직 물과 모래로만 만들어진 작품들은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웅장하다. 전시가 끝나면 허물어지는 '시한부' 모래조각을 만들려면 모래와 물을 부으며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만 2개월이 걸리고, 본격적인 조각 작업은 2~3주 걸린다. 2017년 전시는 '미국'을 주제로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구라요시



- 1 카페 '구라에서 내려다본 시라카베도조군·아카가와라 거리'
- 2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과 고색창연한 건물.
- 3 행복의 복신 '후쿠로쿠주'.
- 4 하코타 인형 공방.
- 5 양조장에 들어선 잡화점.



흰 벽과 붉은 기와가 인상적인 시라카베도조군

주요쿠 지방 동북부에 위치한 돗토리현은 동서로 길게 늘어선 해안선과 평야, 다이센 산으로 대표되는 산악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서부, 중부, 동부로 나뉜다. 돗토리 여행 중에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중부의 중심지인 구라요시(倉吉)의 시라카베도조군(白壁土藏群)·아카가와라(赤瓦) 거리다. 돗토리 사구가 자연의 시간이 누적돼 만들어진 것이라면, 시라카베도조군·아카가와라 거리는 사람의 역사가 쌓여 있는 곳으로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지어진 창고와 가옥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마을이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드라마 촬영

영명소인 이곳은 국가지정 중요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로 아름다운 일본의 역사적 풍경 100선으로 선정됐다. '시라카베도조'란 하얀 벽 창고, '아카가와라'는 붉은 기와를 의미하는 말로, 화반죽을 바른 흰색 벽에 검게 그을린 삼나무 판자를 덧대고, 지붕엔 빨간 기와를 얹은 창고들이 수로를 따라 늘어서 있다. 마을을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개울과 세월이 묻어나는 목조 건물들은 150년 전에는 창고와 상인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공방이나 양조장, 토산품 가게, 음식점, 카페, 잡화점 등으로 쓰임새가 바뀌었다. 옛 거리를 걷다 보면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빌딩도 하나 없고, 일본 특유의 깨끗함과 조용하

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퍽 인상적이다. 에도 시대의 풍경이 깃든 거리 구경도 재미있지만 연 공방, 하코타 인형 공방, 도자기 공방 등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구석구석을 느리게 돌아다니다 보면 옛 가옥 속에서 일본 게임회사의 음악 제공 프로젝트인 '히나비타'의 캐릭터가 고개를 쏙 내밀기도 하고, 행운을 부르는 고양이·호테이(행운)·에비스(사업 번창) 등 다양한 복신이 거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 1877년에 창업한 구와타 간장 양조장과 간장 가게, 요네자와 붕어빵 가게, 카페 '구라' 등은 제각각 맛과 전통을 뽐낸다.

돗토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천 체험이다. 구라요시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미사사 온천은 850년의 역사를 지녔는데, 몸에 좋은 라돈 성분이 많은 '명탕'으로 이름나 있다. '미사사'(三朝)라는 말은 '이곳에서 아침을 세 번 맞이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900m의 미토쿠산으로 둘러싸인 미사사 온천은 산중에 묻힌 고요한 마을로, 미토쿠강을 따라 온천 여관이 웅장하게 모여 있다. 특히 미토쿠강의 미사사다리 아래에 있는 가와라 노천탕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남녀 혼탕으로 눈길을 끈다.

- 6 미사사 온천의 명물인 '가와라 노천탕'.
- 7 연 그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연 공방.
- 8 미사사 온천 마을에는 곳곳에 무료 족탕이 있다.

사카이미나토



만화 '요괴인간 타요마'의 원작자 이름을 딴 거리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는 요괴들의 동상이 무려 153개나 세워져 있고, 길 곁머리에는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이 있다. 요괴를 테마로 한 요괴열차도 동심을 자극한다.



요괴들의 천국, 미즈키 시게루 거리

일본은 만화(漫畫)의 천국이다. 돗토리현 서부 끄트 머리에 자리한 사카이미나토에서 '만화'라 함은 아이 콘인 동시에 문화 이상의 존재이다. 돗토리 출신인 요괴만화가인 미즈키 시게루의 이름을 딴 '미즈키 시게루 로드'는 일본의 국민만화가 된 '게게게의 기타로(鬼太郎)'에 등장하는 수많은 요괴를 만나 볼 수 있는 명소로, 연간 200만 명이 찾는다. 우리 나라에 '요괴인간 타요마'로 소개된 이 만화에는 설화로 전해지는 일본의 다양한 요괴와 귀신이 나오는데, 타요마와 친구들이 악귀로 인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이야기다.

미즈키 시게루 로드는 사카이미나토역에서부터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까지 약 800m에 이르는 거리로, 요괴들의 동상이 무려 153개나 세워져 있다. 역 앞에는 요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즈키 시게루가 책상에 앉아 작업하는 광경을 묘사한 동상이 있고,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걸다 보면 주인공 기타로, 쥐나 생선을 보면 요괴로 변하는 고양이 소녀(네코무스메), 눈알 아저씨(메다마 오야지), 간사한 쥐, 모래 할머니, 거울 보는 요괴, 등산하는 요괴, 우산 요괴 등 다채로운 요괴 동상들이 해괴한 모양과 표정의



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이뿐이 아니다. 택시 위에 놓인 등과 가로등에도 눈알이 그려져 있고, 맨홀에도 섬뜩한 요괴 캐릭터가 녹아 있다. 심지어 요괴들을 모시는 신사(神社)까지 있다. 120엔 짜리 스탬프 책자를 구입해 37개 스탬프 공간을 채우며 가게를 돌다 보면 요괴 모양을 한 빵, 눈알 아저씨 캐릭터 모양을 본떠 만든 경단 등 먹을거리와 열쇠고리, 문구, 나무 인형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입과 눈을 즐겁게 한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주변에서는 요괴로부터 비밀번호 질문을 받더라도 결코 알려주지 마세요"라는 안내판이 웃음을 짓게 만든다. 미즈키 시게루 로드의 종착점에 세워진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에는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 세계와 일대기를 알 수 있도록 그의 작품과 여행을 다니면서 수집한 가편과 탈이 전시돼 있다. 요괴 정원에는 160년 된 적송과 153번째 동상 '기타로 잡이' 숨어 있다. 기념관에서는 한글 팸플릿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QR코드를 이용해 음성가이드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언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사카이미나토역과 요나고역 사이에서는 요괴를 테마로 한 요괴열차도 운행한다. 열차 외관은 요괴들로 꾸며져 있고, 내부는 요괴 천국이다. ⑦

INFORMATION



돗토리현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과 바다, 사구, 온천 그리고 다양한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 기본 정보



가는 방법

인천과 요나고를 잇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이 화·금·일요일, 주 3회 단독 운항한다. 인천발 요나고행 항공편은 화·일요일 오후 12시 30분,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요나고발 인천행 항공편은 화·일요일 오후 3시, 금요일 낮 12시에 출발한다. 요나고 기타로 공항에서 JR이나 버스, 택시를 이용해 사카이미나토나 요나고, 구라요시, 돗토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열차 여행은 사카이미나토에서 요나고까지 50분, 요나고역에서 구라요시역까지 40분, 요나고역에서 돗토리역까지 1시간 40분 소요된다. 항공 외에도 목요일 오후 6시 강원도 동해항에서 DBS 크루즈 페리를 타고 다음날 오전 9시 사카이미나토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DBS 크루즈 페리는 토요일 오후 7시 사카이미나토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9시 동해항에 도착한다.



기후

연평균 기온은 14.5도로 서울(11.1도)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뭍은 한국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면 된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 둘러볼 곳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

요나고에서 구라요시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호쿠에이정의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코난 박물관)은 만화 '명탐정 코난'의 팬이라면 반드시 찾아봐야 할 명소다. 역사의 벽과 천장, 플랫폼 대기실까지 온통 코난의 얼굴로 가득한 JR유라 역에서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까지 약 1.4km에 이르는 코난 도로에는 코난 동상 10여 개가 있다. 코난 박물관에 다르면 우선 아가사 박사가 타는 차를 재현한 노란 자동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차는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의 아버지가 생산이 중단된 폴크스바겐 중고차 2대를 구입해 직접 제작한 것이다. 박물관에는 아오야마의 어린 시절 자료를 비롯해 '명탐정 코난'의 반역판, 스케치, 포스터, TV 코난 셀화 등이 전시돼 있다. 터보엔진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거나 음성을 변조해 주는 나비넥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명탐정 코난 퀴즈를 풀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현재 도쿄에 거주하는 아오야마 고쇼의 작업실도 엿볼 수 있다.

이용 요금 어른 700엔, 중고생 500엔, 초등학생 300엔, 초등학생 미만 무료, **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오후 5시 입장 마감), 연중무휴.



와라베 어린이관

돗토리시에 있는 와라베 어린이관은 지난 1989년 돗토리 세계 장난감 박람회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개관한 장난감 박물관이다. 1층 '동요의 방'에는 돗토리현 출신의 음악가 소개와 일본의 전통 어린이 노래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시돼 있고 노래 듣기도 가능하다. 2층 장난감 연구소와 장난감 제작실에서는 놀이와 공작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3층은 향토 완구, 꿈과 동경(소꿉놀이 장난감), 정의와 모험(배트맨, 마징가 등), 타고 노는 장난감(기차·배·비행기 등) 등 1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는데 그야말로 '장난감 천국'이다. 고등학생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사계절 놀이터가 된다. 외국인 성인은 여권을 제시하면 500엔에서 250엔으로 50% 할인해 준다.



▶ 먹을거리와 체험



소바 체험

소바는 일본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리 중 하나다. 매년 마지막 날에 장수(長壽)를 기원하며 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다. 돗토리시에 있는 시카노 도장(道場)은 식당 겸 지역의 명물인 소바를 직접 만들고 시식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메밀 320g과 밀가루 80g(4인분)에 물을 넣고 조물조물 주물러 반죽을 만들고, 밀대로 밀고 2mm 정도 굵기로 썬다. 뜨거운 물에 2분 정도 삶은 뒤 찬물로 씻어내면 쫄깃쫄깃한 메밀 소바가 완성된다. 만드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체험 비용은 2천160엔이다. 체험객 수는 연 2천500여 명으로, 이중 5% 정도를 외국인이 차지한다.



맷돌 커피

구라요시의 시라카베도조군에서 꼭 맛보아야 할 것이 '맷돌 커피'다. 카페 '구라'(久樂)에서는 원두를 맷돌로 갈아 사이펀식으로 내린 후 설탕이나 크림 대신 달콤한 팥을 내놓는다. 마실 사람이 맷돌로 원두를 직접 갈아 볼 수도 있다. 쓴 커피와 달달한 팥이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오래도록 남는다. 특히 찻잔 아래에 가라앉은 커피향이 밴 단팥의 맛은 색다르다. 커피와 팥을 따로 먹어도 별미다. 1층에서는 다양한 소품을 팔고, 한 잔에 500엔 하는 커피를 맛보려면 일본식 가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2층으로 올라가야 한다.



규코츠 라멘(우골라면)

일본 라멘은 육수와 토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일본에는 돼지 뼈로 육수를 낸 돈코츠 라멘이 많지만 돗토리현에서는 소뼈로 국물을 우려낸 '규코츠 라멘'이 유명하다. 50년 전 목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뼈를 사용하면서 돗토리의 대표 음식이 됐다. 600엔 하는 규코츠 라멘은 돈코츠 라멘보다 시원하고 담백하다.



가이세키

'눈으로 먹는다'고 할 정도로 가이세키는 꾸밈이 화려하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식재료와 음식 종류도 다양한데 국물 요리 한 가지와 본 요리 세 가지를 의미하는 일즙삼채(一汁三彩)가 기본이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돗토리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바다참게를 삶아 내는데, 입에 넣으면 촉촉하고 부드럽다.



코코가든의 팬케이크

돗토리시 야즈정에 위치한 코코가든은 일본 각지에서 식도락가들이 찾아오는 유명 맛집이다. 코코가든은 가게에서 5km 떨어진 오에노시토 자연목장에서 닭 3만 마리를 풀어놓고 키운다. 이곳에서 생산한 달걀로 만든 두툼한 팬케이크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다. 메이플 시럽을 곁들이면 달달한 행복감이 입안에 사르르 녹아든다. 팬케이크 680엔, 커피 포함 1천50엔.



사부사부

돗토리시의 다쿠미 요릿집은 일본 사부사부의 원조인 스스기나베 요리로 이름난 맛집이다. 얇지만 큼직하게 썬 쇠고기를 다양한 채소와 곁들여 낸다. 데친 쇠고기를 참깨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특징인데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이 여행객의 혀를 사로잡는다. 쇠고기는 올레인의 함유량이 55%를 넘는 돗토리현 브랜드 와규 '올레인 55'를 사용한다.